

지역명품을 세계명품으로

창사 57주년 광주일보 캠페인

스타벅스 이겨낸 '토종 커피브랜드'

6 케냐에스프레소

고급원두 고집 품질관리 철저
저렴한 가격에 맛·향 뛰어어나
84호점 개점...10곳 개설 준비



케냐에스프레소를 지역 명품 브랜드로 키워 낸 차명원 대표(오른쪽 끝)가 직원들과 함께 로스팅(원두 볶기) 작업을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요즘 광주 시내 주요 상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커피 전문점이다. 원두커피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트렌드로 자리잡은지도 꽤 됐지만 깨끗한 뒷맛을 남기는 원두커피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불황속에서도 꾸준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다양한 커피 전문점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곳이 광주 토종 브랜드인 '케냐에스프레소'다. 스타벅스, 할리스 등 경쟁하는 전문점이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케냐에스프레소의 브랜드 파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케냐는 현재 84호점까지 개점한 상태로 경기 구리점을 제외하면 모두 광주·전남지역에 매장이 있다. 지금도 10여개 점포가 개설을 준비중이고 프랜차이즈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0년 옛 전남도청 인근 대성학원 부지 옆에서 1호점으로 출발한 케냐가 지역 명품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고급 원두를 고집하는 차명원 대표(47)의 품질관리에 있다.

17년전 '주노커피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 원두커피를 제조·유통해 온 차 대표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단체인 CSC 인증을 받은 원두만을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유명 원두 전문가인 엔리코바사와 계약을 맺고 원

두 선별과 블렌딩, 로스팅 기술을 4년째 전수받고 있다.

차 대표는 "원두커피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은 사업차 한국을 방문한 재미교포로부터 최고 품질인 '케냐산 AA등급' 원두커피 맛을 보면서 부터"라며 "브랜드를 케냐에스프레소로 정한 이유도 그때 맛 본 케냐산 최고급 원두의 정신을 지켜가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케냐에스프레소는 정통 이탈리아 커피를 표방하고 있다. 기본 좋은 쓴맛과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차 대표는 타 브랜드에 비해 진한 맛이 케냐만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20대 여성이 주 타깃층인 만큼 한 잔으로 두 잔 분량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진한 맛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도 케냐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데 일조를 했다. 차 대표는 현재 가격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원두를 생산하는 루트를 확보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공급적으로는 케냐가 '커피+문화'를 파는 공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다.

차 대표는 "케냐에 오면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니라 편하게 책도 보고 대화도 나누는 문화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제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토종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진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에 걸맞게 타 지역 시장 공략에도 나설 생각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국민·신한·하나·우리銀 등 12곳 재무건전성 하향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국민은행 등 4개 은행의 재무건전성등급(BFSR)을 하향조정할 것을 비롯해 12개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등급과 전망을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현재의 금융위기로 인해 증가하는 압박(스트레스)과 한국 정부의 은행들에 대한 지원 여력, 채무 부담 능력 등

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BFSR을 각각 'C'에서 'C-'로 내렸으며, 기업은행, 농협, 수협은 BFSR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또 산업은행의 시중예금등급을 'Aa1'에서 'A1'로 내리고 등급전망을 '부정적'으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급 조정

로 제시했으며, 국민은행의 시중예금등급도 'Aa3'에서 'A1'로 하향조정했다.

이번 등급 및 전망 조정 대상 금융기관은 한 국씨티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농협, 수협,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12개 다. /연합뉴스

국제곡물값 급등 여파

지난해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이 상승하면서 소, 돼지, 닭 등 축산물의 생산비가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08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곡물가격, 환율이 오르면서 사료 값이 상승해 배합사료를 주로 먹이는 돼지, 닭 및 그 부산물인 계란 생산비가 큰 폭으로 올랐다.

돼지(비육돈) 생산비는 2007년 100kg당 18만3천원에서 지난해 22만2천원으로 21.3% 올랐고 계란 생산비(10개)는 880원에서 1천155원으로 31.3%나 뛰었다. 닭(육계) 생산비(kg당)도 930원에서 1천97원으로 18.0% 상승했다.

소 생산비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볶짚 같은 조사료(섬유질 사료) 비중이 30% 이상이어서 곡물가격 상승의 영향을 덜 받은 것이다.

송아지 한 마리의 생산비는 2007년 214만2천원에서 지난해 246만7천원으로 15.2%, 한우 비육우(고기를 목적으로 살찌운 수소) 생산비(600kg당)는 471만1천원에서 521만2천원으로 10.6% 각각 올랐다.

우유 생산비는 l 당 509원에서 585원으로 14.9%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배합사료의 주 원료인 사료용 옥수수 값이 연 평균 44.5%, 원·달러 환율은 18.7%나 상승하면서 사료비가 올랐고 결국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소 생산비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볶짚 같은 조사료(섬유질 사료) 비중이 30% 이상이어서 곡물가격 상승의 영향을 덜 받은 것이다.

송아지 한 마리의 생산비는 2007년 214만2천원에서 지난해 246만7천원으로 15.2%, 한우 비육우(고기를 목적으로 살찌운 수소) 생산비(600kg당)는 471만1천원에서 521만2천원으로 10.6% 각각 올랐다.

우유 생산비는 l 당 509원에서 585원으로 14.9%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배합사료의 주 원료인 사료용 옥수수 값이 연 평균 44.5%, 원·달러 환율은 18.7%나 상승하면서 사료비가 올랐고 결국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대주주 200억 사재 출연... 조선사 중 첫 정상화

신생 조선사인 TKS가 1.2차 건설·조선업 구조조정 대상 업체 가운데 조선업체로는 처음으로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졸업한다.

주채권은행인 광주은행은 20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TKS의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TKS는 1.2차 건설·조선업 구조조정 대상 기업 가운데 롯데기공, 대야건설, 신일건설에 이어 네번째로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됐다. 조선업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TKS는 지난 4일 경영정상화 계획을 체결하고, 워크아웃 졸업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광주은행은 워크아웃 기간 동안 대주주 등이 2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자본금을 대폭 늘리면서 워크아웃 약정을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대주주와 주력기업의 지원으로 TKS는 육상부 조선소를 완공했고, 공정의 85%가 진척된 해상부 조선소는 오는 7월말 완공될 예정이다. 신규 선박 4척(3만5천t급)의 수주계약을 체결해 건조 중이며 4척은 계약의향

서가 접수된 상태.

워크아웃 기간 중에도 신규 선박 10여척의 수주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2척의 선박을 인도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기업개선팀 김남식 팀장은 "자본금 200억원 증자와 대주주 지원으로 유동성 문제 해소, 조선소 건설 진행, 추가 선박수주 가능성 증대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 조기졸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TKS는 지난 2007년 8월 설립된 신설 조선사로,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영광군 흥남읍에 조선소 부지가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소·돼지 축산물 생산비 경중

국제곡물값 급등 여파

지난해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이 상승하면서 소, 돼지, 닭 등 축산물의 생산비가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돼지 축산물 생산비 경중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08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곡물가격, 환율이 오르면서 사료 값이 상승해 배합사료를 주로 먹이는 돼지, 닭 및 그 부산물인 계란 생산비가 큰 폭으로 올랐다.

소·돼지 축산물 생산비 경중

돼지(비육돈) 생산비는 2007년 100kg당 18만3천원에서 지난해 22만2천원으로 21.3% 올랐고 계란 생산비(10개)는 880원에서 1천155원으로 31.3%나 뛰었다. 닭(육계) 생산비(kg당)도 930원에서 1천97원으로 18.0% 상승했다.

영광 TKS 조선 워크아웃 졸업

대주주 200억 사재 출연... 조선사 중 첫 정상화

신생 조선사인 TKS가 1.2차 건설·조선업 구조조정 대상 업체 가운데 조선업체로는 처음으로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졸업한다.

TKS는 지난 4일 경영정상화 계획을 체결하고, 워크아웃 졸업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서가 접수된 상태. 워크아웃 기간 중에도 신규 선박 10여척의 수주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2척의 선박을 인도할 예정이다.

소·돼지 축산물 생산비 경중

국제곡물값 급등 여파

지난해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이 상승하면서 소, 돼지, 닭 등 축산물의 생산비가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생산비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볶짚 같은 조사료(섬유질 사료) 비중이 30% 이상이어서 곡물가격 상승의 영향을 덜 받은 것이다.

광주 삼성 하우젠 세탁기 '로하스' 최우수상

광주에서 생산하는 삼성 하우젠 버블세탁기가 20일 로하스협회 주최 '제1회 대한민국 로하스 어워드'에서 주(主)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포스코 아시아 포럼 2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09 포스코아시아 포럼'에서 백영서 국학연구원 원장이 '아시아의 다양성과 실감'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체 뇌물수수 3년내 두차례면 퇴출

건설업체가 뇌물수수나 입찰담합 행위로 3년 내 두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국도해양부는 3월26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가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주절차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나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1차 위반을 한 뒤 동일 사안을 3년이내에 또 위반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향후 5년간 시장진입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국제보청기
www.kjbc.com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499,000원, 599,000원, 699,000원, 799,000원, 899,000원, 999,000원